

광주FC, 새 시즌 승격 향한 닷 올렸다

선수단 소집 후 동계훈련 돌입
7일 광양에서 체력강화 실시
31일 오키나와에서 전술 훈련

프로축구 광주FC가 2019시즌 승격을 향한 닷을 올렸다.

3일 광주에 따르면 지난 2일 선수단을 소집한 광주는 이후 본격적인 동계훈련에 돌입했다.

선수단은 4일까지 광주에서 메디컬 및 체력측정테스트를 마친 뒤 워밍업을 진행하고, 7일부터 광양과 일본 등으로 이동하며 체력과 전술훈련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4일 실시되는 체력측정테스트는 광주 스포츠과학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단 최초로 실시되는 과학적 분석 시스템으로 교차성, 근력, 민첩성 등 기초체력 10종과 무산소성파워, 유연성, 협응성, 등속성파워 등 전문체력 13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광주는 체력측정 분석·평가 후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선수별 취약 체력요인을 분석, 수준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광주의 본격적인 훈련은 광양에서 시작된다.

광주는 7일부터 28일까지 20여일 간 광양에 머물며 지옥훈련이라 불리는 기초 체력훈련과 선수단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광주 관계자는 "선수들 대부분이 젊기 때문에 성장의 폭도 넓다. 체력 훈련이 버겁겠지만 시즌이 시작되면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내에서는 특성 맞는 개인별 훈련 시스템, 부상방지를 위한 회복훈련 강화 등도



광주FC는 지난 2일 선수단을 소집한 후 7일부터 광양과 일본 오키나와에서 본격적인 동계훈련에 돌입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3일 광주FC의 펠리페가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광주FC 자료사진

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차 훈련은 이달 31일부터 2월 16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된다. 광주는 연습경기 위주로 선수들의 손발을 맞추고, 광주의 색을 입히는 데 주력한다. 또 국내 복귀 후에는 실전에 대비한 마무리 훈련을 갖고 세트피스, 세밀한 전술 조정 등으로 팀을 이끌어 간다.

박진섭 감독은 "승격을 위해서는 그 보다 높은 곳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 이를 위해 선수들과 미팅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도약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2019시즌에는 더욱 강력하고 끈끈해진 광주를 보여 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상기 기자 godqhr0065@

광주 축구 전용구장 건립 본격화

12월 완공... 내년부터 광주FC 홈구장으로 사용
연습구장도 5월 완공... 선수 경기력 향상 등 기대

광주시민 프로축구단인 광주FC의 숙원사업인 축구 전용구장 건립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공업체(케이케이건설) 선정 및 적격심사를 완료하고 다음 주에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2017년 8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공모, 설계용역 등 절차를 진행했다.

위치는 광주월드컵경기장 옆 보조경기장(서구 금화로 240)이다.

연면적 4천259㎡,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본부석과 1만석 규모의 가변형 관람석, 경기운영시설, 17실 규모의 숙소 등을 갖춘다.

사업비는 국비 36억원, 시비 84억원 등 총 120억원이다.

오는 12월 완공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광주FC 홈구장으로 사용된다.

2010년 창단한 광주FC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위해 건립한 광주월드컵경기장을 그동안 홈구장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종합경기장인 광주월드컵경기장이 관람석과 운동장 사이 거리가 떨어져 있어 경기 관람에 최적화되지 않았고 여러 경기와 행사가 열리면서 잔디 상태도 불량해 전용구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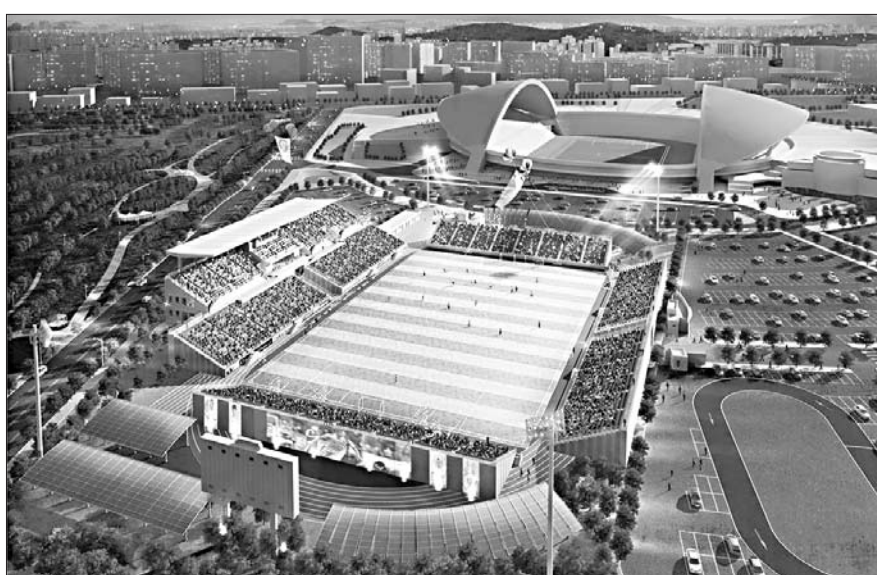
옛 염주 양궁장 부지에 들어서는 광주FC 전용 연습구장도 오는 5월 완공된다.

사업비 33억원을 들여 천연인조 잔디구장, 1면씩 총 2면의 국제규격 축구장과 선수 휴게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다.

광주FC는 그동안 차로 1시간 거리인 목포에 있는 축구센터를 빌려 훈련을 해왔다.

전용구장과 훈련구장이 건설되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이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본부석을 먼저 건립



광주 축구 전용구장 조감도

하고 내년엔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 관람석을 지을 계획이다"며 "광주에 연습 시설이 없어 목표를 오가며 힘든 생활을 한 광주FC가 연습구장에 이어 전용구장까지

/조상기 기자 godqhr0065@naver

류현진·오승환·추신수 '프리미어12' 출전 여부 관심

구단 상황에 따라 합류 가능성

올해 11월에 열리는 세계 12개 야구 최강국 결정전인 제2회 프리미어 12에서 코리안 배리저들이 태극마크를 달지 관심이 쏠린다.

프리미어 12에는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권 2장이 걸렸다.

올림픽 개최국 일본이 본선에 자동 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프리미어 12에서 대만, 호주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최상위 팀 자격으로 올림픽 본선 티켓을 거머쥔다.

한국 야구는 2013년·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거푸 예선 탈락하는 등 최근 국제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

프로 선수들이 주축이 된 대표팀을 구성·운영하는 KBO 사무국과 KBO 기술지원회는 프리미어 12와 내년 도쿄올림픽을 이룬 부진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로 삼는다.

도쿄올림픽에 가려면 무조건 올해 프리미어 12에서 잘해야 한다.



류현진

오승환

추신수

당연히 포지션별 최고 선수로 대표팀을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기의 한국 야구를 살릴 영웅들로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오승환(37·콜로라도 로키스), 추신수(37·텍사스 레인저스) 등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뽑아야 하는 것이냐는 의견도 당연히 등장한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MLB 사무국은 40인 로스터 제의 선수들의 프리미어 12, 올림픽 출전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들은 구단의 승낙을 먼저 받아야 한다.

류현진, 오승환, 추신수는 25인 로스터에 드는 귀한 선수들이다.

올림픽 출전은 어렵더라도 정규리그가

/연합뉴스

끝난 뒤인 11월 2~17일 열리는 프리미어 12에는 구단의 승인을 받으면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다.

가장 합류 가능성이 큰 선수는 오승환이다.

올해 콜로라도에서 1년 더 뛰어야 하는 오승환은 이미 국내 복귀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다.

캘리포니아오피를 수락해 다저스에서 1년 더 던지는 류현진은 상황을 봐야 한다.

다저스는 가을 잔치 단골 출전팀이라 류현진은 10월에도 계속 공을 던질 수 있다.

시즌 후면 류현진 역시 FA가 되기에 계약 협상, 피로 해소 등을 위해 프리미어 12엔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추신수를 비롯해 올해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1년 계약한 강정호(32), 불박이 빅리거를 노리는 최지민(28·탬파베이 레이스) 등 타자들의 대표팀 합류도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오승환은 원정 도박 혐의로 KBO 리그의 72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음주 운전으로 법원의 실형을 받은 강정호의 KBO 징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이들의 대표팀 합류는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연합뉴스

아시안컵 앞둔 손흥민 "토틀 미안"

영국 언론 인터뷰서 "복귀할 때도 몸상태 유지하길"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출전을 위해 잠시 소속팀을 떠나야 하는 손흥민(토트넘)이 팀 동료와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3일(한국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손흥민은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9월에도 한 차례 팀을 떠났는데 또 가게 돼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동료들, 팬들, 그리고 코치진에게 미안하다. 어려운 일이었다"며 "조금 슬프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 대표팀에서도, 토트넘에 돌아올 때도 몸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지난해 러시아 월드컵과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 등을 오가며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느라 시즌 초반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11월 짧은 휴식을 거친 후야야 최상의 컨디션을 회복했고 11월 말부터 무서운 기세로 득점을 뽑아내고 있다.

이를 지켜본 토트넘 팬들은 아시안컵 이후 손흥민의 컨디션이 또다시 저하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손흥민은 "아시안게임 때는 2~3일에 한번씩 경기해서 피곤했다"며 "아시안컵에서 정신적으로 올바른 상태를 유지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채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1월의 휴식이 자신에게 '타닝 포인트'였으며 "이동하지 않고 며칠을 쉬는 채 팀과 훈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 그렇지만 아시안컵은 우리에게 큰 대회다. 59년 동안 우승하지 못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손흥민은 오는 13일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리그 경기를 마지막으로 팀을 잠시 떠나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대표팀에 합류한다.

한국이 아시안컵 결승까지 간다면 손흥민은 토트넘의 경기를 최대 5경기까지 결장하게 된다.

/연합뉴스

광주FC, 베테랑 측면수비수 박선주 영입

프로축구 광주FC가 베테랑 수비수 박선주를 영입하며 전력 보강에 나섰다.

광주는 3일 포항스틸러스, 강원FC서 활약한 프로 7년 차 왼쪽 측면수비수 박선주(26·사진)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대표 출신인 박선주(175cm·62kg)는 왼발 크로스가 좋고 연계플레이에 강하다.

특히 빠른 발을 무기로 오버래핑에 능하고 투쟁심이 뛰어나 팀에 헌신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포항에서 데뷔해 박진섭 감독(당시 코치)과 인연을 맺은 바 있으며, 데뷔시즌 황금 날개로 불리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통산 68경기 1골 3도움을 기록했다.

박진섭 감독은 "(박)선주는 2015년 갑주리그에서 팀을 이끌고 우승을 맛



고 경기에서 나설 정도로 팀에 헌신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며 "충분한 기량을 갖췄기 때문에 이오편과 함께 왼쪽 수비수로 팀 전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박선주는 "지난 시즌까지 부상 여파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다. 기회를 준 광주에서 내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다"며 "감독님과 함께 팀이 승격할 수 있도록 주어진 모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지난 2일 메디컬 테스트를 마친 박선주는 곧바로 팀 훈련에 합류했다.

/조상기 기자 godqhr0065@



이정은 선수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진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은 "한국 선수 신인상 5연패 도전"

LPGA 진출 기자회견... 2월 호주 오픈 신인 자격 출전

2019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진출하는 이정은(23)이 첫해 목표를 신인상으로 내걸었다.

이정은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시즌이라 적응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올해의 선수상과 같은 목표는 너무 크게 느껴져서 일단 주위에서 많은 관심을 주시는 5년 연속 한국 선수 신인상을 목표로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LPGA 투어 웰리파인 스퀴를 1위로 통과하며 2019시즌 LPGA 투어 출전 자격을 얻은 이정은은 한동안 미국 진출 여부를 놓고 고민하다가 지난해 11월 말에 미국행을 선언했다.

2018시즌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2승을 거두며 상급, 평균 타수 1위를 차지한 이정은은 "첫 시즌에 몇 승을 하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뛰고 싶지 않다"며 "저는 KLPGA 투어에서도 우승 없이 신인왕이 됐는데 미국에서도 첫 시즌에 1승이라도 하게 되면 정말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LPGA 투어 선수인 찰리 헬(잉글랜드), 유선영 등의 캐디를 맡았던 애덤 우드워드(호주)를 새 캐디로 정했다는 이정은은 태극마크를 달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전지훈련을 할 예정이다.

또 LPGA 투어 신인 자격으로 나가는 첫 대회는 2월 호주오픈으로 정했다.

/연합뉴스